

국산 F-16 전투기 운용부대를 찾아서



제공격형으로 전투패턴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는 KF-16 전투기의 레이더 탐색거리와 미사일 추적거리가 모두 MiG-29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00 전투비행대대를 지휘하고 있는 변중돈 대대장은 ▲최상의 전비태세 유지 ▲신무기 체계 운영에 따른 전투요원의 정예화 ▲무

"AMRAARM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출격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국산 F-16 전투기를 조종하는 공군 00 전투비행대대 소속 조종사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취재진은 국산 전투기의 운용 실태와 조종사들의 만족도를 알아보려고 공군 00 전투비행대대를 방문, 조종사들을 만나봤다.

F-16 전투기가 F-18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구식 비행기 아니냐는 질문에 "조종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타는데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뛴다. MiG-29와 조우해도 공중전에서 이길수 있는 좋은 전투기라고 자랑스러워한다. 지금까지는 MiG-29가 출현하면 방어를 우선으로 비행하였으나 KF-16 (공군에서는 국산 F-16 전투기를 KF-16이라고 부른다) 전투기가 작전에 투입되면서 선

위 전력 손실 절대 근절 등 3가지 지휘방침을 정해놓고 공군의 최신예, 최정예, 최고의 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형 무기체계를 운영하므로 신무기 체계에 대한 작전절차와 전술을 개발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조종사들은 KF-16 전투기가 작전에 투입되면서 북한의 MiG-29를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비종류 대대장은 최선에 최선의 비행 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KF-16 전투기는 공대공, 공대지, 야간침투 등 3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Multi-Role 전투기이다. 임무에 적합하게 무장을 교체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3가지 임무를 모두 완수하려면 훈련 뿐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한다. 전투기 조종이 복잡할뿐 아니라 적의 무기체계를 숙지하고 최적 작전을 수립하려면 당연한 이야기다.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때 각각의 임무에 따라 맞는 항공기를 모두 보유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결국 비용대 효과면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16이 우리 실정에 가장 적절하다고 말한다. 다만 조종사의 로드를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임무형태별 전담부대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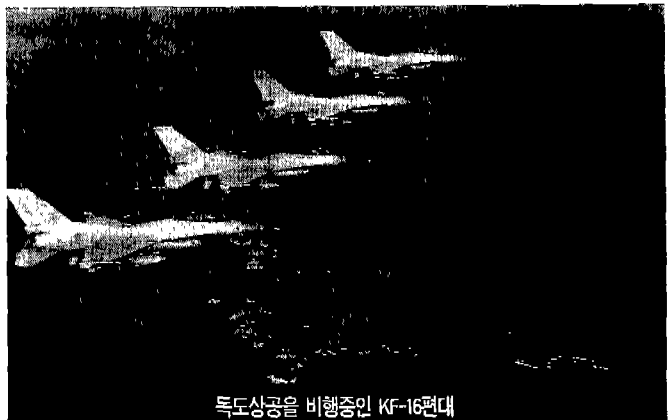
KF-16 조종사들이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AMRAAM과 LANTIRN 장비였다. LANTIRN 장비는 KF-16을 도입하면서 처음 채택된 것으로 야간에도 지형을 파악하여 목표를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저고도 침투 능력이 탁월해 적의 대공포를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 한다. 실제로 지상 30m의 저고도로 지형에 따라 비행하면 레이더에 포착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국산 전투기를 조종할때 불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제작 업체에서 완벽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을 공군에 인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컸다”고 말하고 “미국 맥도널더글러스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장에 ‘해군 조종사의 목숨이 내손에 달렸다’라는 표어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런 마음으로 항공기를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조종사들은 KFP사업 초기에 미국에서 적도입한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것이 결함율이 더 적어 정비면에서도 뛰어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은 MiG-17와 MiG-20 전투기가 주력기종인데 우리의 F-5 제공호로 제압이 가능하나, 숫자면에서 열세에 있다. 상위 기종인 MiG-21과 MiG-23은 F-4 팬텀기로 대항할 수 있고 MiG-29는 F-16으로 제압이 가능하므로 유사시에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체계 획득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계속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독도상공을 비행중인 KF-16편대